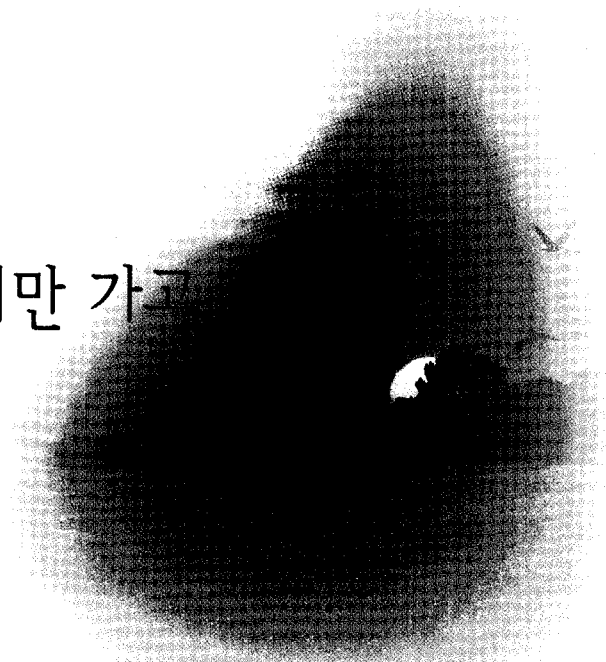


# 파벨라의 밤은 깊어만 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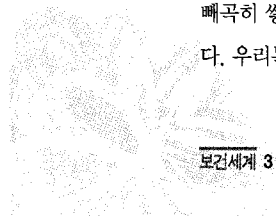


\*\*\* 1년여 전인 지난 2009년 1월, 나는 '1월의 강' 이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결핵 취재를 했었다. 그 취재는 그 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최한 결핵퇴치 이미지상(STOP TB Images Award)에서 대상을 받아 이루어졌다.

생전 처음 브라질을 가보는 나로서는 브라질의 결핵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그러나 브라질은 결핵 심각국가 22개국 중 14위 국가로, 8만2천 명의 결핵환자가 있다. 이 중 1만4천 명이 리우 주에 있었는데, 리우 주는 브라질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곳으로 브라질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은 38명이지만 리우에서의 발병은 82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결핵 환자들은 빈곤층이 대부분이며, 이 빈곤층은 파벨라(favela)라고 하는 빈민촌에 산다. 리우에서 가장 큰 파벨라는 허시냐(Rocinha), 이 허시냐에는 히타 스미스라고 하는 결핵환자협회 회장이 주민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나는 허시냐 입구에서 통역과 함께 히타를 만나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갔다. 허시냐에는 빼곡히 쌓인 벽돌과 시멘트 가옥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들이 많았다. 우리는 골목을 지나 마를렌 피노(70)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



마를렌 할머니는 5명의 자녀, 18명의 손주와 19명의 증손주를 두고 있었는데 대가족의 일원 중 3명이 결핵 환자라고 한다. 그 세 명 중 26살 손자 파울루의 스토리가 흥미롭다.

파울루는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옥을 네 번 들락날락 하면서 결핵에 걸렸다. 17세 첫 감방행을 한 뒤 결핵에 감염된 그는 그동안 출감할 때마다 보건소를 다니며 결핵을 치료하려 했지만 번번이 감옥에 가면서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케이스.

그는 처음 출감했을 때 6개월간 통원 치료를 잘 받았지만 다시 체포돼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 결국 결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본인 자신도 효과를 보지 못해 아예 치료를 중단했고, 다시 경찰에 붙잡혀 지금 현재 니테로이에 있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17살 때 감옥에서 결핵을 얻었고, 거의 10년이 지나 26살인 파울루는 아직도 감방을 오가는 것이다.

허시냐에 오기 며칠 전, 벨포드 호쇼(Belford Roxo)라는 빈민촌에서도 감옥에서 결핵에 걸렸다가 지금은 완치된 알렉스라는 남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알렉스가 수감됐던 감방은 가로 4m, 세로 4m 정도의 크기에 57명의 죄수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마를렌 할머니와 히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파울루가 수감돼 있는 '니테로이'의 감방은 벨포드 호쇼의 감방보다 약간 작은 크기에 80명이 들어간다고 한다. 쪽방 크기의 감방에 80명이라니, 말도 안 된다.

히타는 수많은 환자들이 감방에서 결핵에 감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침한단 말인가. 마를렌 할머니는 “죄수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반은 나머지 반이 잘 때 서 있고, 그들이 잘 때는 나머지 반이 서 있다”고 했다. 유대인 수용소도 아니고, 르완다 제노사이드 가해자 구치소도 아니고, 무슨 순번을 돌아가며 보초를 선단 말인가.

어쨌든 브라질 감방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결핵 환자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히타는 교도소 수감자 중 60%가 결핵에 감염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히타 같은 권익단체 회원이나 의사, 간호사도 접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1주일에 2회 이상 방문할 수 있는 가족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일정을 마무리한 뒤 며칠 후 다시 히타를 방문했다. 그녀와 함께 허시냐의 중심가를 걷고 있던 중, 히타는 길 가던 중간중간 친구들과 포옹을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



0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니테로이(Niterói)에 위치한 아리 파라이라(Ary Parraira) 병원의 남자결핵환자 병동.

중 키가 아주 크고 ‘브라질’ 이라고 쓰인 노란 축구선수 상의를 입은 한 남성과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우리에게 “이 청년도 결핵 환자였어요. 결핵에 자꾸 재감염이 돼서 세 번 정도 치료하더니 이제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주사제 때문에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레 모레이라 데 올리베이라(Alexandre Moreira de Oliveira)이며 나이는 31세. 2003년도에 처음 결핵에 걸려 6개월간 치료를 받아 완치됐으나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나 재발돼 마지막에는 주사요법으로 7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05년 결국 다제내성결핵(MDR-TB) 판정을 받았다.

히타는 나에게 알렉산드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말이다. 결핵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허시냐 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일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히타에게 물어보았더니 나의 질문에 먼저 너털웃음으로 대답했다.

“허시냐에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고요? 하하하. 이곳 인구가 16만 명인데 한달 평균 40~50건의 새로운 결핵 케이스가 발생하지요. 이건 아프리카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리우 시장이 정보를 내 주질 않아요.”

이 방대한 산동네 ‘허시냐’에는 보건소, 즉 CMS(Centro Municipal de Sade)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7~15km 밖에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의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곳 허시냐는 마약 밀매단이 설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이곳 사람들은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집에 여러 가족이 모여 살고, 또한 영양상태나 면역력이 그다지 좋지도 않아요. 결핵이 이곳에서 창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파벨라의 현실 또 한 가지. 각 파벨라에는 마약 갱단이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지역을 장악, 활동하고 있다. 허시냐에는 ‘붉은 명령(Comando Vermelho; CV)’이라는 갱단이 활동하고 있어 리우 경찰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석양 무렵의 파벨라는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마약 밀매와 갱단이라는 위험요소 외에 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적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



이 글을 쓴 정은진 님은 프랑스 포토저널리스트로 서울대학교와 뉴욕의 NYU, 미주리 대학 언론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4년부터 전업사진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산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결핵 환자 ‘카마르 스토리’로 프랑스 페르피냥 CARE 상 그랑프리 수상, WHO 주최 결핵퇴치이미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카발의 사진사》와 《내 이름은 눈물입니다》가 있다. 2010년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